

분류	구역공과
제목	전도자와 복음(2)-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백성
성경	빌립보서 1:6
일시	2012년 1월 15일
장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서론

▶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셋째 주이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계시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빌1: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서울과 울산에서도 같이 중직자 분들이 모이고 있다. 구역공과 책을 여러분이 그대로 보면 된다. 그러나 뭘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조금 같이 생각하셔야 한다.

▶ 우선 먼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모이는 팀들이 있다. 하도하도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뭘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동령도 참석하고 많은 재벌도 참석하는 단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 단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아야 한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나면 외국 가서 한번 가보라.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우리처럼 당회로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모인다.

그리고 이미 모든 학생들을 노리고 계획을 다 짜고 있는 단체가 있다. 지금 거의 흔들리고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문화 쪽으로 다 장악을 했다. 그것이 뉴에이지라는 단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다. 다 파고 들어갔다.

미국 뉴욕에 보면 보석만 파는 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전 세계의 금값, 다이아몬드 값이 결정된다.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뉴욕에만 한 2천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장사들을 다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격도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다 조절한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자는 말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아니고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각과 메시지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램넛들이 여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은 알려줘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이런 단체에 빠져 죽지 않도록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중직자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왕 하는 것 이렇게 서로 알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모임 정도로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매주 참석하셔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자라도 장로님석, 안수집사님석, 권사님석을 정해 놓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아예 건축을 하면 건물 빌딩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찰도 달고,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주일날 와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해야 한다.

▶ 이 세 단체가 거의 귀신들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사명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알고, 어떤 면에서는 항상 알고 전달해줘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이런 일도 생기도 저런 일도 생긴다. 여러분이 말씀 받기 전에,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에 6일 동안 살다 왔다. 그러면 주로 세 가지 일이 생긴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다.

▶ 그럴 때 마다 언젠지 하나님의 계획이 될까? 질문해야 한다.

(1) 영적 상태- 개인

▶ 그것을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한다. 지금부터 해보라.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될까를 질문해야 한다. 내가 잘못된 것은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문제가 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될까? 이 생각을 조금 한 것과 안 한 것은 나중에 응답에 차이가 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절망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 상태이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기도하다가 큰 꿈을 꾸게 된 것이 이해된 것이다. 그것도 영적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2) 영적 성취- 예배

▶ 여러분이 그렇게만 되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행1:8절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읽는다고 해도 계속 다른 답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예 반대로 늘 낙심해 있다가 교회에 오면 성취가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교회에 왔다면 잠시 위로부터 안 되는

♣ 성경 말씀(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교재 자료 ♣

♣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일생을 두고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발걸음을 평생 인도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1) 빌1:6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 재림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 (2) 고전3:16, 롬8:15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 (3) 롬8:31-39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쫓을 수 없습니다.
- (4) 고후4:7-9 꺾박, 환란이 와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5) 고전2:12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 많습디다.

2. 언약의 백성은 이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 (1) 행1:8, 마24:14 복음 운동과 전도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맞아집니다.
- (2) 행2:1-4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합니다.
- (3) 행3:9-11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립니다.
- (4) 행2:17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 (5) 행2:41 현장에서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 (6) 행2:46-47 전 지역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3.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1) 히1:14, 히12:22, 계8:3-5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 구체적 인 역사가 일어 납니다.
- (2) 마12:28-29, 눅10:19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집니다.
- (3) 빌3:20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 (4) 마28:16-20, 막16:15-20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이 예비, 보장되어 있습니다.

(The end)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며 남의 말만 계속하다가 교회에 왔다면 아무런 답이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염려하다가 교회에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취가 되겠는가? 은혜는 될지 몰라도 성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만 이것만(영적 상태) 알면 중직자로서 큰 중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전국에 있는 중직자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3) 영적 소통- 삶

▶그 다음에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런 저런 일이 생기고, 돈을 벌어야 한다. 돈 벌기가 쉬운가? 많은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통하기는 하나님하고 통해야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뒤에 오는 답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빌1: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이것이 중직자 분들이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할 비밀이다. 그런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기 전에만 이 생각을 해도 된다.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너무 어렵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아서 나가보면 어려움이 온 것 같고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썩 보인다. 이것을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한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언젠지 이런 게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을 해버리면 아이들 말로 말짱 헛일이다. 그냥 책을 보면 되지 않는가? 메시지란 것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와 기록 안 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록이 안 되어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트, CCC책을 가지고 가서 암만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할 말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이다. 프리메이슨, 뉴에이, 유대인도 책을 엄청 내놨다.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영적 소통) 잘 이해하면 당장에 무슨 응답이 온다기 보다는 빌1:6절의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된다.

▶왜 그런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세상은 무섭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상태(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란 말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썩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을 한다. 이 사람들의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걸 체험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프리메이슨들은 매일 같이 모인다.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에 한번 가면 못 빠져나온다. 왜냐하면 귀신을 체험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조건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이 영적 상태, 영적 성취, 영적 소통을 알면 제대로 이해가 된다.

1. 승리(언약)-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알긴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1) 빌1:6

▶빌1:6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절대 영적 상태에서 지면 안 된다.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극한 가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어머니에 따라서 그 뒤의 응답은 달라진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도 살고(영적 성취), 현장도 사는 것이다(영적 소통). 영적 상태는 개인이고 영적 성취는 예배고 영적 소통은 현장이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니까? 모세는 80세에 역사가 일어났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100세를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그때는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나가시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성령

▶고전3:16절, 롬8:15절에 꼭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3) 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나가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해나가시는가? 롬8:31-39절에 보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나가신다고 되어있다.

(4) 핍박

▶특히 여러분에게는 고후4:7-9절에 보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이 핍박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5)은혜 것들

▶그리고 고전2: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많이 있다. 은혜라고 안 그러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걸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 승리다.

그러면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상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세 개(영적 상태, 영적 성취, 영적 소통)를 명심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2. 방향(전도)- 언약의 백성은 이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두 번째가 뭐가? 반드시 승리할 백성이란 언약을 붙잡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방향이다.

우리의 방향이 이리 가야 하는지 저리 가야 하는지 그런 이미 예수 안 믿어도 알 수 있지 않나? 그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 해보라. 매일같이 전도하러 가지 말고 전도가 뭔가를 생각해봐라. 어느 날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방향에 딱 와있다. 여러분이 매일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도가 아니다. 매일같이 생각해봐라. 저는 신문을 봐도 생각한다. TV를 봐도 생각한다. 어느 마을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호텔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것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전도를 생각한다. 그렇게만 했는데 여러분이 누구하고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게 되어있다. 예사로 듣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엉터리로 막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렇게 이루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 줄 모르고 자꾸만 인본주의를 써서 결국 손해를 본다. 참 바보다. 싫다. 어떤 사람은 사람관계에 갈등해서 넘어지는데 그게 바보다. 될 모르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의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악령 말고 성령으로. 이 힘은 오늘 분명히 롬8장에 아무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핍박도 여러분이 사방으로 육여썩을 당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은 전도하러 가라는 말이 아니다. 늘 생각하라. 처음에 여러분이 운전을 해보면 어떤가? 처음에 운전 가르쳐 준다고 운동장 나갔다가 그것도 못 하나며 싸움을 한다. 아니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하겠는가? 그런데 조금 하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금방 된다. 그러다 한 번씩 사고 나서 남의 차들이 밟기도 한다. 그래도 한 몇 년쯤 지나면 저절로 된다. 그냥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면 어느 날 나하고 딱 맞게 되어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로 전도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거기에 대한 이유다.

(1) 행1:8, 마24:14

▶행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마24: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다.

(2) 행2:1-4

▶행2:1-4절,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전도방향 속에 있으면 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다. 여기로 방향을 쫓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3) 행3:9-11

▶얇은땀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

(4) 행2:17

▶더 중요한 것은 행2:17절에 미래가 보인다. 아니 그냥 전도만 쫓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래가 보인다. 이걸 지금까지 모든 신자와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참 바보다.

(5) 행2:41

▶여러분이 이걸 쫓 하고 있으면 결국은 3천 제자가 일어날 정도로 연결되게 되어있다.

(6) 행2:46-47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배당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이렇게 된다. 물론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이니 지금부터 이 생각을 매일같이 편안하게 하시다보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목사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저는 진짜로 목사는 이 생각만 늘 해야지 안 그러면 바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바보가 하는 것이다. 목사, 교역자, 선교사는 항상 이 생각만 해야 한다.

3.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타난다. 권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권세의 특징은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능의 특징은 활용 안 해도 내가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세는 그게 아니다. 권능과 권세가 어디가 다를까? 둘 다 힘인데 권능이란 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그런데 권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면 그건 능력이다. 그렇지 않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자체로 보면 권능이다. 조기범 장로는 의사만 하지 말고 문화장관을 해라. 그건 권세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권능과 권세는 다르다. 같은데 다르다. 그러면 이 권세는 뭐해야 하는가? 활용을 해야 한다. 경찰이 되는 날 교통경찰이라는 직함이 주어지면 그건 권세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게 되어있다. 밀짚하게 지나가는 차를 여러분이 가서 세워보면 서는가? 그런데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세우면 차가 서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1)히1:14, 히12:22, 계8:3-5

▶특히 히1:14절에 하늘군대가 여러분을 도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히12:2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된다. 계8:3-5,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부름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다.

(2)마12:28-29, 눅10:19

▶반대로 여러분은 눅10:19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길(영적 상태, 영적 성취, 영적 소통)하면서, 이길 안 하면서 하면 곤란하겠지만 이길 알고 여러분이 권세를 쓰면 응답 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마12:28-29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집,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3)빌3:20

▶또 빌3:20절에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사실은 뭘 가지고 있는가? 천국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영적 상태, 영적 성취, 영적 소통)을 알아들으면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4)마28:16-20, 막16:15-20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 마28:16-20절에 쉽게 말하면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냥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권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보면 이 영적 상태가 문제이다. 흔들흔들하고 있다. 램뉘트들도 실제로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상태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교회 가서 뭘 해야 하나고 묻는데 영적상태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는 예배가 뭘지(영적 성취) 알려줘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일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으로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세 번째 주 메시지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다. 또 여러분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메시지다. 오늘 예배 때 말씀으로 성취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너무 곤란한 일이 있는가? 그게 메시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다르게 생각한다.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은 큰 응답 받을 수 있다. 우리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짧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빨리 와계시는 것이 유리하다. 어쩔 수 없이 딱 9시에 시작해서 이 시간에 안 마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멸망시키는 단체는 매일같이 모여 생을 거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것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안 맞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중직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